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겸손한 증거자 세례 요한 II

(요 3:22-30)

이종윤 원로목사

2.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분수를 지킨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충동했지만 그는 저열한 아침자들을 향하여 왜 자신이 예수님을 높이고 어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증언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 하늘에서 오신 분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는 것이 요한의 첫 번째 논지(증언)입니다(요 3:13).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시기하고 그분과 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원천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피조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충동시켰지만 그는 아주 초연하게 자기 사명에만 충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2)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요 3: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분을 증거하러 왔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은 자기 예언의 성취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를 상실할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지킨 참으로 훌륭한 사도입니다.

(3) 예수님은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

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요 3:29).

세례 요한은 자기 동일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신자요,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랑의 친구는 신자(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든 전파자를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신랑 친구의 송고한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기쁨은 그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습니다(눅 1:44).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4)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요 3:30)

‘흥한다’는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나는 망해야 된다’는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냄으로써 자기는 쇠해지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축소되고 예수님은 증대되었고, 마지막에는 악랄한 헤롯의 칼날에 목을 잘리는 죽음까지 당하였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고 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를 때에 불안정한 종교가들은 그 앞에서 쇠잔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외형적이지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고, 즐거워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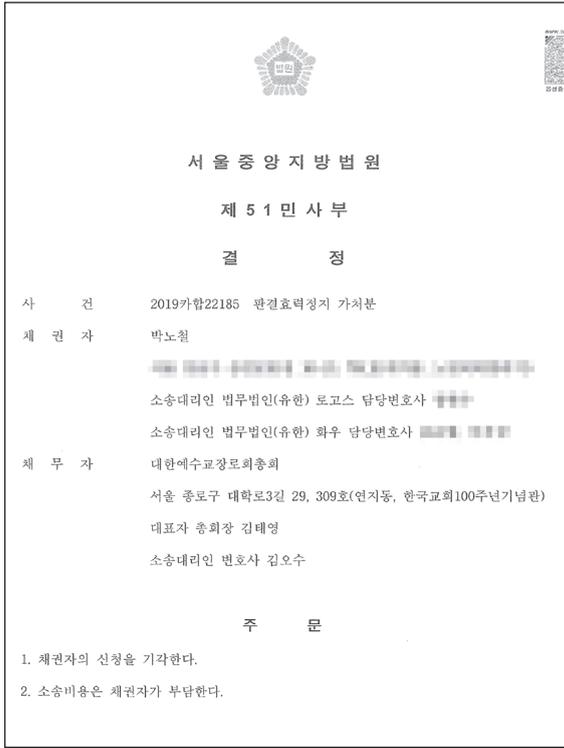
임시당회장 파송 지연시키고 있는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명분이 없어져
교단 헌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지난 2020년 5월 19일(화),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의 교회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변경, 세무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 외부 용역동원과 폭력행사, 장로 불법입직 등을 권징 사유로 삼아 관여 재판국원 만장일치로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박노철 목사가 위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 등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결의 등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박노철 목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위 판결이 절차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그 결정이유에서 박노철 목사가 주장하는 사유, 즉 위 출교판결과정에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기소장이 결여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으며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곧바로 고소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 등에 대하여 **교단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박노철 목사가 판결문에 기재된 여러 죄과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박노철 목사도 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총회재판국의 재심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다며



과반수 당회원들이 합의하여 요청한 임시당회장 파송까지 지연시키고 있던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이를 핑계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에 과반수 당회원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직후 서울강남노회에 더 이상 임시당회장 파송을 늦출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 기각결정을 첨부하여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달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였다.

또 지난 4월 29일(목) 교단 총회에 서울강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의 출교판결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를 비호하며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교단 헌법상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상위 치리회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임을 지적하며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명령하여 달라고 탄원한 바도 있어 위 기각결정 직후 총회임원회에도 재심 기각결정에 이어 사회법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도 기각된 사실을 급히 알리며 곧바로 총회장 명의로 서울강남노회에 위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물론 박노철 목사가 위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하여 또다시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여지는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미 총회재판국 판결의 즉시확정 효력에 따라 서울교회 담임목사 자격은 물론 서울강남노회 회원자격도 상실하여 서울교회는 명실공히 담임목사 결원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서울강남노회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라도 서울교회 과반수 당회원이 **교단 헌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임시당회장을 즉각 파송하여 상회로서 지교회 행정을 정상화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러한 제반 조치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서울교회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하혜심 안재선·문수자 전성희 김숙자 이봉규 장창수·박해정 최유현 전희정 송재현·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기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 예) 홍길동심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지난해 목회정책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7(주)
* 암송범위: 시편 119편
-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0(토)



코로나로 고통받는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를 도우시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까지 13,000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일 7,8백 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공장을 뺀 온 나라를 봉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다니고 있고, 현재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 25일부터 이드 축제 기간을 위해 다음 주부터 쇼핑몰과 가게 등 봉쇄를 푼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도 여러가지 노력은 하는데 재정과 물품과 인력 등 부족함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학교는 5월 말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아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소망 호스텔도 공동 밀집기관에 속하는 교육 기관으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갈 집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 몇 명은 호스텔에 남아있습니다. 모든 곳이 봉쇄되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부모들은 할 일들이 없어지면서 먹는 일이 걱정입니다. 몇 명은 부모가 구걸하러 내보내고, 아이들은 신나서 구걸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에 맘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아이들에게 음식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봉쇄되어 직접 물건을 사서 보내줄 수 없어 약간의 돈을 모바일로 보내주면 돈을 찾아 물건을 사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명은 이틀 후부터 먹을 것이 없었다고 울면서 애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빈민가 아이들이다 보

니 빈민가 가정들의 상황의 체감이 바로 되어 맘이 아픕니다. 가능한 대로 봉쇄가 끝날 때까지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서 해방되길...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쇼리웃뿔 학교도 학생 가정에 한 해 나눔을 했습니다. 56가정 (쌀, 소금, 렌즈콩, 기름 등) 지역 모슬렐들이 아직도 저희 소망학교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어느 분이 마스크 사라지며 주신 현금으로 물품을 사서 전달하여, 쇼리웃뿔 지역과 아이들 가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한 소식입니다. 제가 5월 11일 방글라데시에서 떠나는 2차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갑니다. 어려운 상황에 사역지를 지키고 있어야 도리인 줄 아나 몇 달전부터 아팠던 몸이 조금 심해져서 치료를 받고 들어오려 합니다. 학교와 호스텔이 휴교일 때 다녀오는 것이 나올 듯 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고, 치료받은 후 들어오려 합니다. 아이들 구제 등은 사감인 노즈를 목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도 미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해 돌아오길 기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방글라데시와 조남혜 선교사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도우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사랑의 동역자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이 땅의 회복과 회개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방글라데시에서 조남혜 선교사와 소망의 아이들이 울립니다.

조남혜 선교사

2020 흥해작전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

“
예루살렘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사 51:17)
”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1.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이웃교회들이
원하는대로 행할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따라 행하겠사오니,
-편의주의에 안주하려는 유혹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2. 성령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겠사오니,
-세속에 민감한 인기 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요,
성경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 상업주의에 물든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4.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으니,
- 허세 가득한 눈가림만 하는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5.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될 때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히 맞서는
살아 운동력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6. 교회의 주인되신 주님의 참 뜻을
항상 기억하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므로
질적 현신을 회복하겠사오니,
-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대학, 성년의 날 기념행사 열려

호산나대학은 지난 5월 18일(월), 올해 성년이 되는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호산나대학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성년 선서 및 선언, 성년이 된 나에게 쓰는 편지 낭독, 축복 찬송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년이 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성년이 된 나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며 어려웠던 학창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잘 견디며 성장해 준 자신에게 고마움을 말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올해로 10년째 맞이한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이전과 다르게, 학생회에서 성년이 되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된 장미 묘목을 구입하여 한 그루씩

선물하였다. 성년이 된 학생들이 직접 장미 묘목을 심으며 성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맞이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지원 학생(신입생)은 “새로 심는 장미나무가 마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필 수 있도록 잘 돌보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장미심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장미를 직접 심고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 학창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장미와 함께 성장하며 자기존중감을 길러나가는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산나대학은 새롭게 조성되는 장미정원을 시작으로 매년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이름으로 된 장미를 심을 계획이다.

성년이 된 휘현이에게

안녕 어른이 된 휘현아, 나 석휘현이야!
이렇게 성년이 되니 부모님께서
너를 호산나대학으로
보내주시고 많은 친구들과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축하한다.
네가 이런 성년이 되었으니,
먼저 호산나대학에서 생활을 잘 하길 바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꿈,
제빵사가 되는 것도 꼭 이루길 바란다.
앞으로는 더 잘 걷고 뛰기도 하는
건강한 휘현이가 되기를 바라며.



- ① 성년이 된 나에게 쓰는 편지
- ② 호산나대학의 성년의 날 행사
- ③ ④ 성년의 날 행사 일환인 학생 자신의 이름인 장미 묘목 식재
- ⑤ 올해 성년이 된 호산나대학 학생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여호수아 정기목요조찬집회를 양재동의 한국통일진흥원 강당에서 5월 28일(목)부터 설교한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20 홍해작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안식년 분안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어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3.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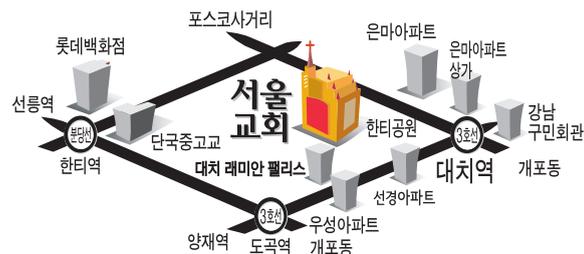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5월 25일	월	느 8-10		눅 1-2	
5월 26일	화	느 11-13		눅 3-6	
5월 27일	수	에 1-3		눅 7-9	
5월 28일	목	에 4-10		눅 10-12	
5월 29일	금	욘 1-3		눅 13-17	
5월 30일	토	욘 4-7		눅 18-21	
5월 31일	주일	욘 8-10		눅 22-24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